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환영했고 어린이들은 프란치스칸이 2020 Quinquennial (5년차 회의)에 온 것을 환영했습니다.

Q 회의의 첫 만찬에서 첫 샐러드가 제공되기 전에, 프란치스칸은 피닉스 교구의 가톨릭 학교 학생들로부터 환대받았습니다.

테이블에 있는 각 참석자에게 눈에 띄는 것은 1,500 명의 학생 중 한 명이 장식한 프란치스코, 클라라 또는 그들의 제자들의 한 명을 묘사한 적층 식탁용 접시받침이었습니다.

교구의 모든 가톨릭 학교는 이 행사를 위한 접시받침을 만들라는 초대에 응했습니다. 피닉스 평화 형제회의 베티 홀로(Betty Holler) OFS 가 이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성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재미있었어요.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많이 다녔고 선생님들은 우리와 협력하는 데 능숙했습니다.”라고 베티가 말했습니다.

베티는 30 가지 프란치스칸 장면의 디자인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구비오에서 늑대를 진정시키는 프란치스코, 사라센(이슬람교도)을 물리치는 클라라, 오상을 받는 프란치스코 받는 등.

모든 접시받침이 완성되고 수집되면 베티는 참석자들이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를 래미네이트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5 개의 래미네이터를 동시에 가동했습니다.

1 학년부터 8 학년 학생들이 참여했고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의 옷 색깔에 대해 질문을 했다.

“나는 그들에게 전통적으로 우리는 그를 갈색 의복을 입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확실히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너털너털한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옷을 보이게 하라고 말했습니다.”라고 베티가 말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그의 아버지가 프랑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이름을 바꿀 때까지는 프란치스코의 원래 이름이 요한 또는 스페인어로 후안이라는 사실에 매료되었습니다.

베티는 학생들과 함께 일하고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의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좋아했습니다. 각 접시받침에는 다음과 같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접시받침은 오늘 저녁을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드는 데 참여한 1,500 명의 어린이 중 한 명이 디자인했습니다. 특별한 선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피닉스 교구의 모든 가톨릭 학교는 한 재속회원과 더불어 성 프란치스코와 성 클라라에 대해 배우고 우리의 접시받침 과제를 도우며 시간을 보내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기조연설자 로리 힌커(Lori Hinker)OF 는 베티의 작업을 칭찬하고 형제회가 젊은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그들의 사명의 일부가 되도록 격려했습니다.

“베티는 개인적으로 학교에 접촉했고 압도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로리가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와 글라라의 이야기를 전파하는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싶어 하는 다른 형제회를 위해 베티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귀하의 교구에서 가톨릭 학교를 찾으십시오.
- 교장에게 편지나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 그 후에 전화로 확인하십시오.
- 온라인 교사 웹사이트나 Etsy 에서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의 색칠 하는 페이지를 찾으십시오.
- 접시받침을 아이들과 함께 만드는 시간을 학교와 함께 정하십시오.
- 프란치스코와 글라라에 대해 이야기를 할 준비를 하고 도착하십시오.
- 학교, 교회 또는 형제회에서 접시받침을 사용할 저녁 식사나 행사를 예정하십시오